

두장의 사진

두 부류의 사회



첫장은 미국 연합사에서 2000년 9월 30일에 발표한 뉴스사진인데 한 파룬궁학원이 천안문 광장에서 평화청원을 했다고 중공 경찰들의 습격을 받았다.(왼쪽 사진) 두번째 사진은 2011년 2월 12일에 뉴욕 퍼레이드 새해시위행진 경축활동에서 한 중국인남성이 관중속에서 뛰쳐나와 파룬궁대오앞으로 달려들어 현수막을 잡아당기고 가름대를 부셔버렸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세 경찰이 즉시 그를 제지시키고 체포했다.(오른쪽 사진)

이 두장의 사진은 현명한 대비를 이루는바 자유사회에서는 파룬궁학원들이 신앙자유가 있으므로 경찰들은 파룬궁학원들의 평화시위행진을 폭력으로 소란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폭도들을 붙잡지만, 중국에서는 중공 경찰들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평화청원하는 파룬궁학원들을 마음대로 붙잡는다. 이렇게 대륙 파룬궁학원들의 자유는 짓밟히고 평화신소권리마저도 박탈되었다.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경찰들의 직책이다. 파룬궁학원들이 “편싼런”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사회에 유익한 것이다. 미국 경찰들은 파룬궁학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폭도들에게 침해 받지 않고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중국 경찰들은 온정을 수호한다는 구실로 파룬궁학원들을 붙잡고 박해를 감행하고 있다.

두 부류의 사회의 경찰들이 군중을 대함에 있어서 왜 이처럼 차이가 큰가? 매우 불행한 것은 중국에서 당의 리익은 늘 법률과 백성의 리익과



충돌이 생기고 당에 충성하는 경찰들은 당을 위하여 ‘폭도’로 전락되는 것이다. 자유사회에서 온정을 수호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민중의 리익을 앞에 놓고 매개 국민의 리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온정을 보장하고 있다. 자유사회에는 중공처럼 당의 리익을 법률과 민중리익의 위에다 놓는 당이 없다. 두장 사진의 선명한 대비에서 중공은 중국사회의 최대 동란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아낼수 있다.

천멸중공의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중공의 순장품이 되지 말고 하루 속히 중공조직에서 “3 퇴(퇴당, 퇴단, 퇴대)”하여 생명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자!

인기를 끈 파룬궁 요고대



지난 3월 12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거행한 시위행진대오중에서 14명으로 구성된 요고대가 제일 인기를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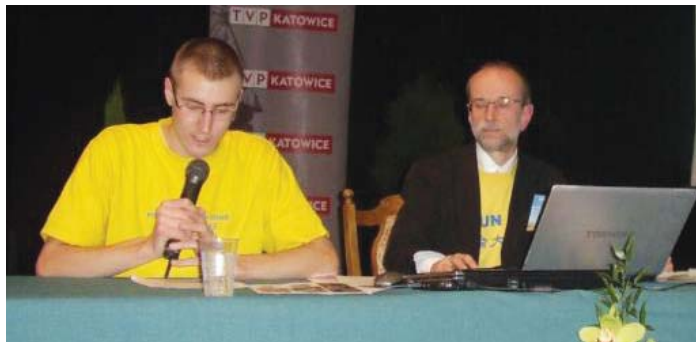
도 편 뉴 스



지난 3월 4일, 한국 “사법개혁범련대”단체와 파룬궁학회, 서울시민들이 서울주재 중공령관앞에서 뉴스발표회를 열고 한국문화주권을 침해한 부총영사 김연광을 추방하라고 호소했다.



지난 3월 6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정지하라고 서명했다.



지난 2월 25일, 폴란드 “건강박람회”에서 파룬궁학원들이 관중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했다.



지난 2월 27일, 샌프란시스코의 파룬궁학원들이 중국성에서 집회를 열고 9천만 용사들이 “3퇴”함을 성원했다.



이 일은 내가 세뇌반에 불법적으로 갇혀있을 때 생긴 것이다. 세뇌반에 갇힌 우리 파룬따파제자들은 1, 2층에 들어있었고 3층은 “610 (중공의 파룬궁을 박해하는 전문기구임)”인원들이 들어있었다. 어느날, 큰비가 억수로 퍼붓고 큰 우뢰가 울더니 연속 우뢰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운데로 울려왔다. 갑자기 깨질듯한 우뢰가 옥상의 한 구석을 내리치자 온 층집이 진동되었다. 깜작 놀란 “610”인원들은 소리 지르며 2층 강당으로 달려내려왔다. 큰 우뢰가 창문을 통해 또다시 2층을 쳤다. 그들은 1층 강당으로 몰려들어 웅크리고 앉았다. 갑자기 우뢰가 울고 번개가 치더니 하나의 불덩이를 단 우뢰가 강당으로 굴러들어와 한바퀴 에돌고 밖으로 나갈때, 강당의 문어구에 있는 직경이 1m 넘는 화분통과 소철나무를 쳐 몇 m 밖으로 뿌려졌다. 온 강당은 삽시에 온통 수라장이 되어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쳤다. 그들이 갈 길이 없어 갈팡질팡할때, 누가 일깨워주었는지 모두 갑자기 파룬궁학원들이 갇혀있는 방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나를 관리하는 한 “610”인원이 달려와 나의 옆에 앉아 혈떡거리며 말했다. 《놀라 죽겠다!》 내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자, 그는 나를 보고 물었다. 《당신은 무섭지 않소?》 《무섭지 않소. 이 우뢰는 우리들을 치지 못하오.》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파룬궁학원들의 옆에 있으면 제일 안전하군.》



연변박해소식

- 2011년 1월 4일, 화룡시팔가자립업국의 파룬궁학원 정모진(鄭慕珍)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지금 화룡시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화룡시팔가자의 파룬궁학원 리룡춘(李龍春)은 불법적으로 7년 판결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2월 10일경에 갑자기 실종되었던 랑영매(郎延梅)와 리영결(李永潔)은 불법적으로 로동 교양 1년 판결을 받고 3월 4일에 흑취자로개소에 압송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 연길시 파룬궁학원 범명란(范明蘭)은 지금 화룡시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